



5면

IA 한인 청소년단, 전주 문화 만끽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음 5월 29일)

제37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본궤도

민간 주도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IOC가 제정한 '올림픽 데이' 기념해 진행

총 2036명 구성 6개 분과 중심 구조 갖춰

도, 국제사회 설득 등 위한 유치 활동 본격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간 주도로 구성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하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이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유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정한 '올림픽 데이(6월 23일)'를 기념해 진행됐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총 2,036명으로 구성됐으며, 체육, 언론홍보, 문화관광, AI·학술, 지역발전, 도민참여 등 6개 분과 중심의 체계적 구조를 갖췄다.

전북 도민은 물론 출향도민, 청년,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민간 중심의 유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각 분

과는 유치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서는 전북 14개 시군 대표에게 위촉장이 전달됐. 지역 전역의 참여 기반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

이어 철인3종(김동주), 수영(한다경), 배구(정술민), 야구(이찬영) 선수 등 도내 청소년 체육인들이 무대에 올라 유치 선언문을 낭독했다.

전주기접놀이 깃발 5기가 등장하는 상징 퍼포먼스를 통해 전북의 강한 유치 의지를 표현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참여 확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중심으로 유치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IOC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 전략형 홍보, 유치 당위성에 대한 메시지를 국내외로 확산시켜 전북의 가능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전북의 특징점을 녹여낸 콘텐츠도

개발된다. 도는 참여형 홍보와 K-컬처, AI, 탄소중립 등 지역 자산을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전북형 올림픽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융복합 모델과 지속가능한 대회 운영 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유치 전략은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을 100% 활용해 SOC 투자를 최소화하고, 새만금국제공항과 KTX 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특화형 체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 숙박 자원과 지역 특화형 관광 프로그램도 결합해 환경·경제·문화가 조화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올림픽은 전북을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지역 전반의 대도약을 이끌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올림픽은 서울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처럼 국민을 하나로 모을 사회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올림픽 유치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추진위 출범을 계기로, 국제사회 설득과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내달 18일까지

야행명소 공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숨은 밤 풍경과 지역의 고유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의 밤'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모 대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전통문화가 녹아든 마을 축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자연경관에 라이츄소를 입힌 수변공간 등,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소들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은 최대 3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곳이 선정되며, 선정된 명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명소들을 중심으로 '밤에도 머무는 전북', '야간관광도시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국방부장관 안규백·통일부장관 정동영 지명

이 대통령, 11개 정부부처 내각 인선

안 의원이 임명되면 64년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장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전북 연고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전북 지역 국회의원인 정동영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11개 부처 및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및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안 의원이 임명되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등장하게 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전재수 의원이 지명됐다.

전직 한나라당 의원인 권오을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장관에 내정됐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는 배경훈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이 내정됐다. 외교부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주오스트리아, 주인도 대사를 거쳐 외교부 1·2차관을 지낸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고용노동부장관에는 김영훈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내정됐다. 농식품부장관은 송미령 현직 장관이 유임됐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지명됐다.

한편, 이번 내각 인선에서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첫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재훈 기자

도민 체감 특례사업 본격화

도, 58개 특례 본격 시행·17개는 실행 준비단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개정 이후 1년여 만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업 실행에 본격 돌입하며,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특례사업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 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전략을 논의했다.

〈관련사진 3면〉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 중 75건이 사업과 가능한 특례로 분류돼 있으며, 이 중 58건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17건도 조례 제정, 용역 착수, 부

처 협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올 상반기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미래산업 기반인 지구·단지·특구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전북혁신도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기반 기술산업,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할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특례 실행과 연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방침으로, 총 85건, 3조6,965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

백 제 보 러
익 산 가 자



국보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국립익산박물관: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